

청년과 함께하는 목포항구축제 열린다



14~16일 목포항·삼학도 일원서 퍼레이드·불꽃쇼·디스코파티 MZ세대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항구도시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목포항구축제'가 열린다. 목포시는 '2022 목포항구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2 목포항구축제는 전통인 '파시'를 계승, 발전하는 한편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 항구'라는 주제로,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무장하고 시민들을 맞는다. 이번 축제는 목포역에서 시작하는 '청년파시로드 퍼레이드'를 비롯해 파시나이트&불꽃쇼, 청년 파시 디스코파티, 청년하이볼 페스티벌 등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를 통해 청년이 찾는 항구도시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줄 전망이다.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오는 13일 전야제 행사로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MBC 난영가요제가 열리며, 개막식 행사로 'LG 헬로콘서트 좋은날', 폐막식 행사로 'MBC 바다콘서트'를 열고 축제의 흥을 돋운다. 목포시는 2022 목포항구축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9월 19일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세부추진계획 심의를 시작으로 지난 9월 21일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26일 유관기관 안전대책회의 등을 갖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항구축제는 코로나19로 야외에서 개최하지 못했다"면서 "3년만에 열리는 올해 축제는 항구도시라는 문화적 특성을 부각하면서 청년이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장영진 영광군의회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장영진(사진 오른쪽)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최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격려하고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심사 후 수여하는 상으로, 장 위원장은 전국에서 3명만 선정되는 기초 지방의회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장 위원장이 ▲중고생 무상교육 지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천원버스·천원여객선 실시 ▲농민수당 지급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동안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장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은 군민들께서 늘 응원해주신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일자리서 여가·돌봄까지...해남군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

복지예산 60% 노인복지에 투입
해남군이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노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고령층의 어려움이 가장 컸던 만큼 전체 인구의 35%에 육박하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복지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복지예산 1689억원 중 60%인 1천5억원을 노인복지에 투입한다. 노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77억원을 투입, 2168명이 참여하는 4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 마을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중심으로 자리 잡은 마을 경로당 운영을 위해 34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비, 냉난방비, 중식비, 부식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군내 595개 전체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해충퇴치기 등도 설치했다. 80여개 경로당에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보수 등 긴급급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도 지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7일 산이파크골프장에서 열린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어르신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노인복지 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뚜렷한 노인 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전남 서남권 조선 인력부족 해결 모색

노동연구원·산업연구원 고용정책 전문가 정책 토론회
고용정책 전문가들이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현대삼호중공업이 후원하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조선업 인력 정책 연구 토론회'가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호텔현대(목포)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이은창 연구위원이 '조선산업 환경변화와 시장전망/국내외 주요 정책'을,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종식 부연구위원이 '조선산업 고용 변화 분석과 주요 이슈',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센터장은 '조선산업 및 전남 서남권 특화 고용정책 제언'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목포대학교 송하철 교수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전무, 전남도청 김미순 과장,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조두연 원장, 전남대불산학

융합원 노성호 센터장,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서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 고용노동부 제호민 사무관, 현대삼호중공업 박한규 수석,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센터장과 박종식 부연구위원, 한국산업연구원 이은창 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주 물량 급증에도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불황과 코로나 19, 학령인구 감소로 생산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 조선업계에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목포, 영암, 무안 등 전남 서남권은 배후인구가 약 40만 명으로 500만명이 넘는 부산, 울산, 거제 등 동남권의 10%도 안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전남 서남권에서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인력 정책이 필요한 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2023년 목포 으뜸맛집' 14일까지 모집

목포시가 2023년 목포 으뜸맛집 선정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목포시에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 목포의 음식문화조성을 선도할 업소로 선정 가능하다. 시는 식품업계·관광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서·인증패 교부 ▲지도·책자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 ▲위생·서비스 교육 등 역량강화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한 맛집 품질유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전국 10개 이상, 전라권 5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는 사업 취지상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 업소현황 및 대표메뉴 설명서, 대표메뉴와 업소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목포시 관광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dmsgp392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으뜸맛집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며 "목포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완도군 가학·당인·미라향 어촌뉴딜 사업 순항

완도군이 총 824억원을 투입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낙후한 선착장 등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 사업이다.

2019년 금강 가학항과 노화 솔지항, 2020년 군외 당인항, 2021년 소안 미라향, 2022년 노화 미라향(동송항 포함)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완도 관내 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학항과 솔지항은 방파제·부잔교 공사, 대합실·어민회관 건립 등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 사업지 중 하나인 신구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공간·환경·디자인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 체계를 시범 적용해 개발 효과가 기대된다. 신지 명사항은 부잔교 설치 등 어항시설 정비와 힐링센터 등이 건립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살기 좋은 어촌, 활기찬 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